

‘전방’에 세울까 ‘중원’을 맡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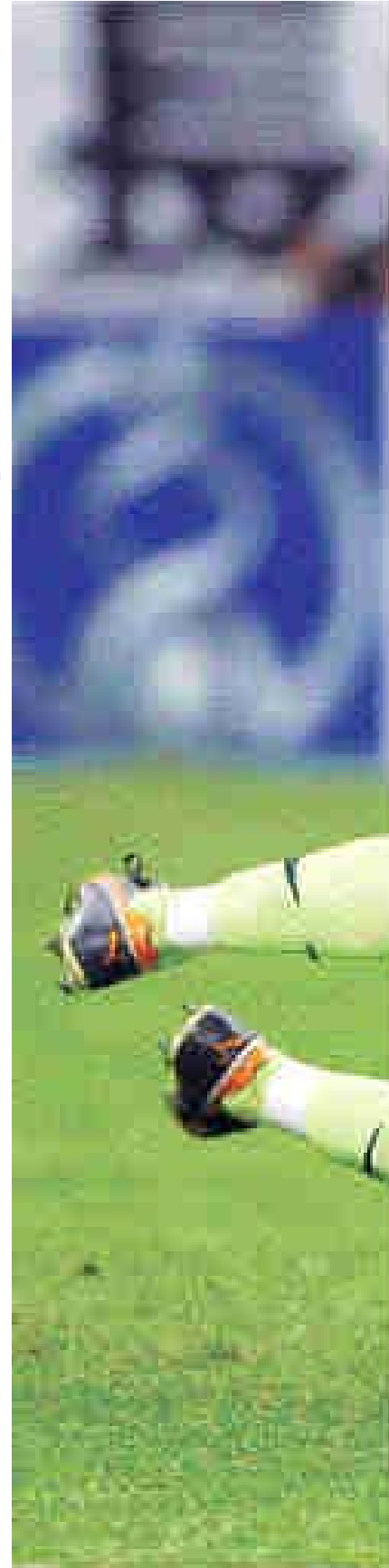
박성화 감독 우즈베크전 박주영 포지션 고심

“일단 내보낼 생각입니다. 다만 어디에 세우느냐가 문제입니다.” 박성화 올림픽축구대표팀 감독은 ‘돌아온 해결사’ 박주영(22·서울)의 부활을 굳게 믿고 있다. 아직 예전 기량을 완전히 되찾진 못했지만 그에 대한 출전 여부가 아니라 활용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올림픽대표팀은 17일(이하 한국시간) 우즈베키스탄과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 5차전 원정경기(0-0 무승부)에서 박주영은 풀타임을 뛰었지만 경기 감각이나 자신감이 예전만 못한 모습이었다. 박 감독은 “아직 좀 더 훈련이 필요하다”면서도 “몸놀림이나 드리블, 볼 컨트롤 등은 훨씬 좋아졌다”며 빠른 회복세를 밝혔다. 박주영은 전방 포워드는 물론 처진 스트

라이어나 공격형 미드필더로 임무 수행이 모두 가능한 멀티 플레이어이다. 박 감독은 “박주영이 전방에 서면 미드필더 한 명을 더 쓸 수 있고 미드필더로 세우면 포워드 한 명을 더 쓸 수 있다”며 “마지막까지 최상의 조합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드필더들이 좋다. 어떤 식으로 다 활용하느냐가 고민이다. 좋은 선수를 쉬게 할 수도 없지 않느냐”고 말해 박주영을 전방에 세우고 재능있는 미드필더들을 가동해 공격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주영은 개인적으로 타슈켄트에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 스무 살의 나이에 A매치 데뷔골을 터트린 장소가 바로 이 곳이다. 비록 경기장은 파크타코르 스타디움으로 달랐지만 2006 독일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원정경기(0-1로 끌려가 패색이 짙었던 종료 직전 극적인 동점골을 터트려 1-1 무승부를 만들어냈다. 박주영의 득점포가 다시 살아나 준다면 6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의 마지막 고비도 수월하게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주영



김용대

GK 김용대, 광주행 신고

상무 신입선수 21명 발표

‘수비진은 강화, 공격진은 약화’ 광주상무 불사조 축구단(이하 광주)은 14일 현 국가대표 골키퍼 김용대(상남)를 비롯한 2008년도 신입선수 21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명단에는 이진재(GK·경남), 장경진(DP·인천), 박종진(DP·대구FC) 등 각 구단에서 주전으로 뛰었던 일부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다. 또 최순호 감독(울산현대대포조선)의 아들 최원우(DP·경남)도 포함됐다.

공도를 비롯해 강용, 이진호, 여승원, 이동식 등 총 20명의 선수들은 빠져나갔다. 이들은 오는 20일 전역과 동시에 각 소속팀으로 복귀한다. 올 시즌 얇은 공격진으로 고전해왔던 광주는 남궁도, 강용, 여승원 등 공격자원이 빠져나가고 수비진만 보강됨에 따라 2008시즌엔 수비형 축구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에서 주전 수비수로 활약한 장경진과, 대구FC의 창단 멤버이면서 호남대 출신인 박종진 등이 새롭게 가세한 수비라인은 기존 한태우, 마철준과 더불어 철벽 방어진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남의 골문을 굳건히 지켰던 이진재와 상남의 국가대표 골키퍼 김용대, 그리고 올 시즌 광주의 수문장

으로 뛰었던 박동석 등을 골문에 포진시켜 수비형 축구 시스템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부족한 공격자원은 이길훈, 고창현, 남익경, 김승용 등 공격형 미드필더를 ‘뺨뺨형 공격수’로 전진 배치할 방침이다. 이같은 공격자원의 고갈은 내년시즌 광주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강조 광주 감독은 “공격축구가 대세지만, 공격진이 크게 약화되고 수비력은 강화된 만큼 내년시즌엔 철저한 방어형 축구를 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네티즌들이 구단주 됐네

‘축구 좀가’ 잉글랜드의 한 인터넷 축구 팬클럽이 잉글랜드 축구 5부 리그 클럽을 인수해 화제가 되고 있다. 14일(한국시간)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풋볼클럽’이라는 웹사이트 회원 2만명은 1인당 35파운드(6만6천400원)씩 내고 인수 자금을 마련했다. 이 팬 클럽은 70만파운드(13억2천800만 원)를 들여 잉글랜드 남부 2부 리그에 연고된 토폰 콘퍼런스(5부리그) 소속 팀 엠스플리트 유나이티드 지분 51%를 사들였다.

잉글랜드 인터넷 팬클럽
5부 리그 축구클럽 인수

마이풋볼클럽 회원들은 앞으로 선수 영입과 선발 라인업 구성 등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 네티즌이 집단 구단주가 돼 직접 팀을 꾸려가는 꿈을 현실로 만든 셈이다. 엠스플리트는 현재 콘퍼런스 24개 팀 중 9위로 마이풋볼클럽 회원들은 다음 시즌 리그 II(4부리그)로 팀을 승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 팀의 롤랜드 에드워즈 사무국장은 전했다. 잉글랜드는 프리미어리그부터 리그 II까지 프로 4부 리그로 구성돼 있고 하부에 있는 콘퍼런스 리그는 아마추어 클럽 형태로 운영되지만 프로 리그로 승격은 가능하다. 네티즌의 구단 인수로 리암 다시 단장은 감독 역할을 맡게 될 것 같다고 AP는 전했다. 회원들은 경기 중에 작전 지시를 하거나 선수 교체할 수 없지만 다음 경기를 앞두고 어떤 선수를 기용해 달라고 감독에게 주문을 할 수도 있는 위치에 올랐다.



박태환 경영월드컵 5차 시리즈 자유형 ‘금빛 질주’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고)이 국제 수영연맹(FINA) 경영월드컵(쇼트코스) 5차 시리즈 자유형 400m에서 가뿐히 금메달을 따냈다. 박태환은 14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에리스달 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42초14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두드렸다. 이어 니컬러스 스프렌거(호주)가 3분44초25로 2위를 차지했고 마츠 클라센네(덴마크)가 3분45초21로 3위였다. 지난 2~3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3차

축구스타 카카 “폭력사태 지속엔 伊 떠날 수도”

브라질 출신의 꽃미남 축구스타 카카(25·AC밀란)가 이탈리아 프로축구를 멍하게 하고 있는 홀리건 폭력 사태를 피해 이탈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탈리아 세리에A 최고연봉 선수인 카카는 14일(한국시간) 브라질 축구대표팀 소집훈련을 앞두고 “주말 경기에서 홀리건들의 난동으로 경기가 취소된 것은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라며 “만약 홀리건 난동과 경기 조치가 계속된다면 이탈리아 축구를 떠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카카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시리즈에서 3관왕을 차지했던 박태환은 3관왕에 다시 오르기 위해 힘차게 출발했다. 하지만 자신의 기록을 단축하지 못한 건 아쉬움이 남았다. 박태환은 시드니 대회 때 자신이 세운 3분39초99보다는 2초 가량 뒤졌다. 세계 기록은 그랜트 헤켓(호주)이 2002년에 작성한 3분34초58. 기록이 떨어진 건 뚜렷한 라이벌 없이 레이스를 펼치다가, 앞선데 맞먹는 물안경에 물이 들어가는 돌발상황마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남 코치인 박석기 전 경영대표 감독은 “(박)태환이가 물 밖으로 나오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나를 보더니 ‘안경에 물이 들어갔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박태환은 스웨덴에 도착한 뒤 수영용품 가게에서 신제품 물안경을 샀는데 결승에서 그것을 착용했다. 그러나 아직 얼굴에 착 달라붙지 않았기 때문인지 입수할 때 안경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고 말았다. 0.67초의 빠른 스타트반응을 보이며 힘차게 출발했지만 눈에 신경을 쓰느라 자신의 기록을 단축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박석기 감독은 “혼자 외롭게 레이스를 펼친 것도 기록 단축 실패의 원인이지만 물안경에 물이 들어간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며 “새로 나온 물안경이라 사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적응이 덜 된 모양이다. 안타까웠지만 ‘괜찮다. 다음날 1,500m에서 잘하자’고 말해줬다”고 했다. 박태환은 휴식을 취한 뒤 15일 새벽에는 자유형 1,500m와 자유형 200m 결승에 도전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K-리그 베스트 팀 ‘경남’

득점·유효슈팅 ‘고득점’
정규 리그 1위 성남 제쳐
전남 9위, 광주 14위 그쳐

K-리그를 운영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5월부터 매 라운드별 베스트 팀을 선정해 발표했다. 목적은 재미있고 공격적인 축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승리(+2), 홈 경기 승리(+0.5), 역전승(+1), 무승부(+1/0-0 제외), 득점(x1), 전반 15분 내 득점(x0.2), 종료 15분 전 득점(x0.2), 슈팅(x0.1), 유효슈팅(x0.1)에 가산점을 주고 파울(x0.1/15개 초과부터), 경고(x0.5), 퇴장(x1)에 감점을 뺀 점수를 냈다. 이렇게 매 주 하우젠 베스트팀을 선정한 결과 돌풍의 도민구단 경남이 종합 순위에서 의외로 1위를 차지했다. 경남은 정규리그 순위는 4위였지만 역전승이 세 차례나 되고 득점, 슈팅, 유효슈팅이 많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총점 94.5점으로 정규리그 1위 성남(90.7점)을 제쳤다. 수원이 87.2점으로 3위였는데 4위는 예상밖으로 대구가 차지했다. 대구는 정규리그 순위가 하위권인 12위에 그쳤지

만 특유의 공격적인 플레이로 득점, 유효슈팅이 많았고 0-0 무승부가 적었다. 파리아스 마법으로 리그를 제패한 포함은 시즌 중엔 공격축구가 주축된 통에 베스트팀 순위 8위에 그쳤다. 귀네슈스 공격축구가 초반 초고속 태풍에 머물고 만 서울은 12위로 체면을 구겼다. 또 전남은 53.6점을 얻어 9위, 광주는 16.7점으로 최하위인 14위에 머물렀다. 구단별 관중 수는 포스트시즌을 합해 경기당 평균 2만5천811명을 끌어들이는 수원이 가장 많았다. 서울이 2만1천515명으로 2위. 관중 증가율은 작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전북이 전년 대비 84.8% 증가로 가장 높았다. 반면 부산은 28.1%나 관중이 감소했다. 올해 정규리그에선 모두 437골이 터져 경기당 평균 2.3골을 기록했다. 작년엔 2.2골. 유효슈팅당 득점률은 성남이 0.34골로 가장 적중률이 높았다. 지난 6월부터 심판들에게 헤드셋을 도입해 주·부심이 의사소통을 하도록 한 결과 파울 수가 다소 줄었다. 헤드셋 사용전엔 경기당 평균 40.5개의 파울이 나왔지만 이후엔 38.5개가 나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 K-리그 신인 드래프트

내년 시즌 프로축구 K-리그의 새별이 되고픈 예비스타들이 꿈을 펼칠 보금자리를 찾는 ‘2008 신인선수 드래프트’가 15일 오전 흥은동 그랜드힐튼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모두 291명이 참가하는 드래프트에는 광

주 상무를 제외한 13개 구단이 참가한다. 올해 드래프트에는 지난해 하태균(수원)처럼 대어급 신인은 없다는 평가지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를 경험한 이호진(24)과 베어베크로부터 올림픽대표팀 수비수로 발탁된 김창훈(20·고려대)을 비롯해 2007 캐나다 20세 이하) 청소년월드컵에서 뛴 조수혁(GK.건국대), 박현범(연세대) 등이 ‘실속있는’ 선수로 각 구단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